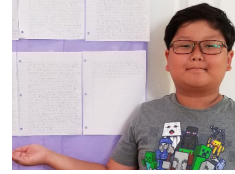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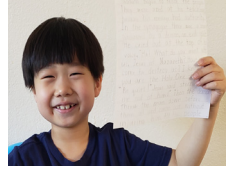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4

Apr. 2021
Vol.9 No.04

-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 EM / 교육부 소식
- 간증 / 기고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팬데믹으로 닫혔던 교회예배가 다시 열려 성전을 찾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 <양영 기자>

반가운 만남, 예배의 기쁨 '충만'



■ 대면예배 재개

반가움과 기쁨, 감사와 안도감, 다소의 어색함까지... 성도들의 표정에서 다양한 감정이 묻어 난다.

대면예배, 그 생소한 단어가 자연스러운 교회 용어가 되고, 모두의 스마트폰 속에 ZOOM 이라는 앱이 깔리고 소통의 텃줄 역할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1년하고도 1개월,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생각까지도.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예배와 사역, 나눔과 친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기다렸다. (3면에 계속)

■ 이단 · 신천지 세미나

이단의 허구성, 실체 깨달아 건강한 신앙을

“이단과 사이비 종파는 일단 세력을 확장하면 막아내기가 어렵고 피해도 큼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 한선희 목사를 초청해 '이단의 이해와신천지'라는 주제로 이단대책 세미나가 줌을 통해 4월 7일부터 매수요일저녁 4회에 걸쳐 진행됐다. 한선희 목사는 40년 넘게 미주에서 이단 사이비 기독교의 실상을 고발하고 목회자들과 교계가 경각심을 촉구해 왔다.

한목사는 한민족의 전통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샤머니즘과 기복 사상이 이단의 발호를 가져 왔다고 설명하고,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로 인해 기성 기독교인들까지도 흑태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한목사는 이단의 정의와 계보를 비롯해 특별히 미주 지역 한인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단 이만희 신천지의 교리와 전도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들을 식별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많은 참고자료와 영상

을 통해 이단에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안예교회 리더들에게 필수 이수교육 과정으로 2백여명 참석하고 있다. | 조용대 기자 |

■ 세네갈 선교 지원

서부 아프리카 지역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

주안예교회에서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분의 선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금석(최영주) 선교사는 기독교 신앙 불모지인 현지에서 25년째 대학생 공동체 사역을 통해 목회자와 지역교회 지도자를 양성해 복음의 확장에 헌신하고 있고, 김승주 선교사 역시 현지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다음은 당회에 전해 온 인사 편지의 일부. 노금석 선교사 “보내주신 소식 감사하게



노금석, 최영주 선교사



김승주 선교사

잘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귀한 선교후원금을 통해 꼴로방 대학생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사역에 대해서는 기도제목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안예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승주 선교사 ‘ICCC 가 세네갈 안에 들어왔다’ 소리지르며 옥상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흔들며 춤을 추다 내려왔습니다. 생면 부지의 사람에게 선교사라는 이름 만으로 후하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주안예교회의 선하고 귀한 결정에 감사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Covid19 으로 인해서 대면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새 생명의 탄생은 이어졌다. 대면예배의 시작과 함께 생후 첫 교회 나들이를 나온 천진스런 아기들의 모습에서 평온한 일상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왼쪽)은 이요셉 전도사님과 이에스터 사모님의 듣직한 장남 이시온 아기와 김지연 집사와 장주성 집사의 장남 장하성 아기이다.



■ 결혼 세미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의 감격 새롭게

■ BP채플 첫 예배



일년이 지난 대면 예배가 드디어 4월 18일 부에나팍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음향과 찬양을 위해 오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소독과 청소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손길로 성전을 우리의 성전으로 변하게 하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낮선 동네, 낯선 성전을 향해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기대와 기다림으로 예배가 준비 되었습니다. 이 험한 시간 어떻게 지내시 다 오셨을까 궁금한 마음을 녹여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최선의 생명줄인 것을 증명하는 예배였습니다. 95세의 권사님도 따님의 부축을 받으며 오셨고, 2019,2020년 중병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던 권사님도 남편과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성령님께서 친히 안내해 주신 우리의 예배 자리를 우리는 지키려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말씀이 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예배의 감격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아온 떠났던 성도도 계셨고, 손수 찾아온 새신자 분들도 계셨고,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에 풍족한 말씀의 진실함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예배였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말씀이 성도를 각성 시키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명 앞에 순종하리라 각오하며 회개의 기도를 울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며, 특히 이번 관대막을 통해 새로 익숙해진 대면예배라는 단어에 깊이 동감하며, 너무 감사해 감사로 드러진 예배였습니다.

역시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러져야 마땅한 공동체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할 예배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찬양 합니다.

| 이예스더 기자, 사진: 이광영 기자 |



<1면서 계속> 드디어 재개된 대면예배, 아직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서로 손 잡기도 주저하고, 낯선 사람들처럼 낯짝하게 떨어져 앉아야 하는 ‘반쪽’ 대면예배지만 성전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좋았고 감사했다.

더 간절해진 찬양, 마음을 모아 울려 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정의’를 통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한다는 목사님 메시지에 모두가 아멘으로 공감했다.

때마침 시작된 부에나팍(BP)채플 예배는 더욱 의미가 깊었다. 많은 봉사자들이 첫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며 오랜만에 모이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예배의 기쁨과 함께 믿음생활하는 성도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주안예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활기찬 주일 풍경



■ 주안에 새가족

찬양과 함께 쌓였던 눈물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애 권사라 합니다. 권사라 하기엔 너무 부족함이 많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얼마전 멀리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전에 다니던 교회가 많이 떨어져 버려서 안타까워 하고 있었는데, 더 불어 Covid19 까지 겹치면서,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림으로 거의 1년 가까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찾던 중 어느날, 주안예교회 쪽으로 지나가는 길에 십자가가 눈에 번쩍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는 주안예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요.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건 몇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 11시 예배 시작 때의 찬양은 저도 모르게, 쌓여있던 눈물을 쏟아내

게 하더군요. 또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 주시고 신경써 주시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사랑도 감사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안예교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출석하면서, 교회의 질서도 익히고, 필요한 성경공부도 제대로 참석해서, 제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 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하고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조금더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영애 권사

■ 밸리채플 권사회 임원회

모처럼 한자리 정담과 웃음 만발

코로나로 답답하고 지루하였던 지난 일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난달 3월 마지막 월요일날, 밸리 1,2,3 임원단 권사회 모임을 담임 목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이복희 권사님택에서 모였다.

갈비 냉면을 맛있게 준비하여 뒷마당에 모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복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의 말씀 시간을 가진후, 제2권사회에 새로운 부회장으로 수고하실 김선자 권사님을 모두들 환영하였고, 또 동부로 이사하실 서부남 권사님을 위한 송별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새로 부회장으로 섬겨주실 김선자 권사님은 주안에서 하나가된 권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그리고 떠나는 서부남 권사님은 일생동안 지난 5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오랜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



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다.

| 임용자 기자 |

■ EM 리더모임



'...a collective heart of gratitude'

Matthew 18:20 states,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Well, I think I speak for the rest of the leaders when I say with absolute confidence that the Lord was with us as we gathered to praise His Name and what He is doing with the EM (and pack on a couple pounds enjoying the most delectable steaks, courtesy of Tom Park).

The weather was perfect, and so were the conditions for a storm of allergies, no thanks to California's notorious spring pollen, but nothing a little Claritin and a box of Kleenex couldn't handle. And I only highlight such things to further emphasize just how dedicated the leaders are: coming together despite having full lives to live, young children

to raise, and the general stresses of our "new-normal" lives to deal with.

We took a trip down memory lane to our days in college, playing the infamous "two truths, one lie" game to break the ice. And oh boy, what ice did we break: I question if I even know who my parents are, because I sure got their truths and lies wrong. TRUTH-fully speaking, it was a joyous time, and as we broke ice and bread, so did we get a chance to reflect on what new ground God has broken with the EM.

What a good God we serve, that though we are just a humble group of over-worked parents and still-figuring-out-life young adults, He would allow us to be the vessel to share His love with the future.

We expounded on the wisdom our EM members shared with us, coming from both well-seasoned, faithful men and women like Ernie, to the fresh minds of college students. We took a moment to excitedly plan for future events, and listen to what Pastor Choi had to say about the EM. And let me tell you, even he had to admit, it truly is the grace of God and the members who made this all happen.

At the end, even as we all split off into different corners of Tom and Laura Park's beautiful home to join various church Zoom meetings, we had a collective heart of gratitude: You indeed are a ubiquitous, magnificent God, joining us as we gather in Your Name, to serve in the love You first showed us.

| Paul Yang |

■ Father Wise

'Working in a God's Way'

I wanted to be a better father to my children, and a better husband to my wife, and a better man for myself.

And I wanted to do so in a Godly way. What does the bible teach about being a better man?

I know that determination and desire alone are not enough to succeed in life—it's not about working hard, but it's about working in a God's way. And this is also true for being a good father. What we need are instructions and guidance from the Bible.

Over the 10 weeks course of Fatherwise, together, we fathers, read, learned, shared, and discussed topics regard-



이카일 집사

ing fatherhood. Each morning started with reading the daily QT in the study material, meditating on God's words, and there were tips and specific exercises to try for the week to encourage us to change our behavior. Then, during weekly meetings, we would share and have in-depth discussions and open up our hearts.

I am truly thankful for the 10 weeks experience of Fatherwise. The fellowships with other fathers were heart-felt and encouraging, the daily QT became a habit to keep, and the Fatherwise learning gave wisdom for life improvement—my family needs me to be a father who is stable and fixed like a tree planted by the streams of water.

■ IC Kidz 분반공부

또래들 끼리 한자리 “Zoom 속에도 즐거워요”



코로나 감염 사태로 가족들이 집에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거나 상냥치 않은 말들이 오가는 상황도 늘었다. 갈등과 다툼이 해결 되려면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야 한다. 이래저래 사과가 많은 시기다.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따라 사과가 사과로 끝난다. 어설픈 사과는 되레 화를 키워 후폭풍을 몰고 온다. 그러기에 사과에도

사과의 기술

기술이 있다. 사과 전문가로 국제적으로 저명했던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에런 라자르 박사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수천 건의 사례를 모아 ‘사과에 대해’라는 책을 썼다.

그가 말하는 첫째 덕목은 상대방이 매우 기분 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다. “이건 내 잘못”이라고 확실히 인정하라는 것이다.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서도, “당신이 기분 나빴다면(또는 불쾌했다면),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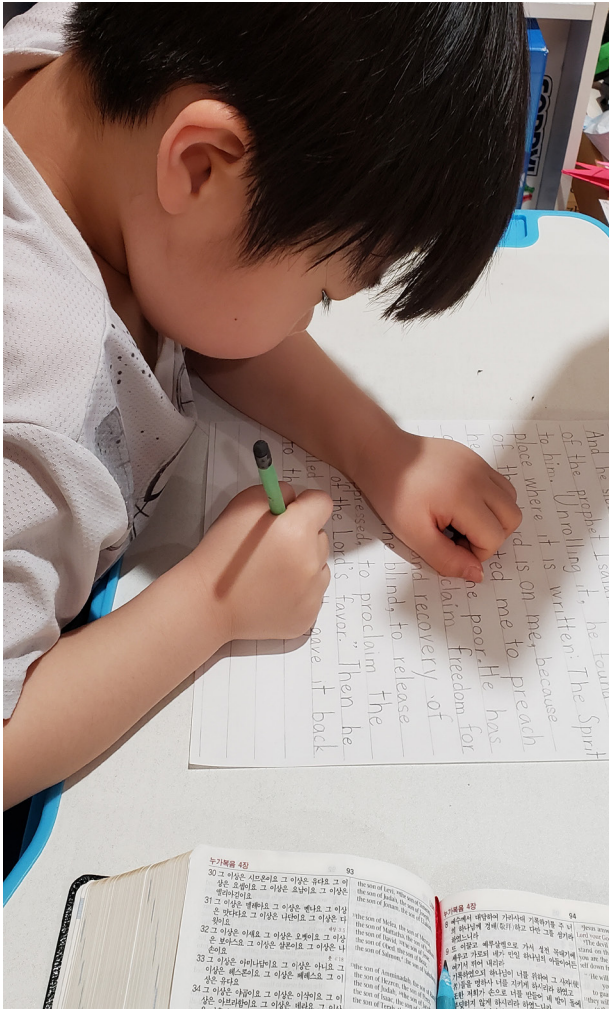
사과할게”라는 식의 멘트는 여전히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들리기 쉽다. 수동태를 쓰지 말라고도 조언한다. 예를 들어 ‘실수가 이뤄졌습니다’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두루뭉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상대방은 진정성을 의심한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었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면 되레 부아를 돌을 수 있다.

(조선일보 칼럼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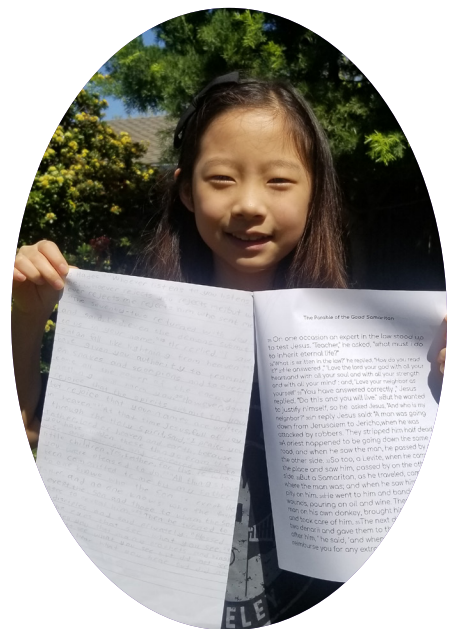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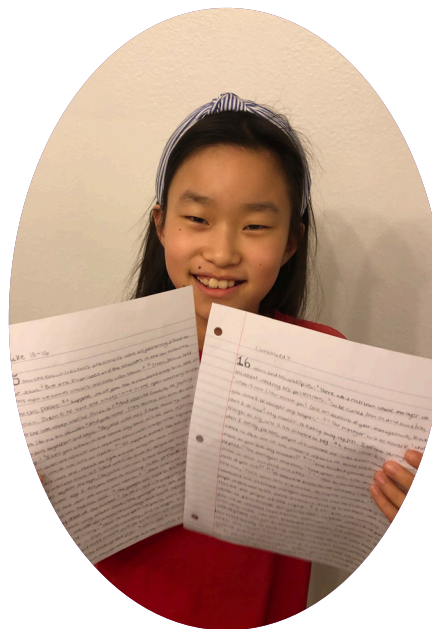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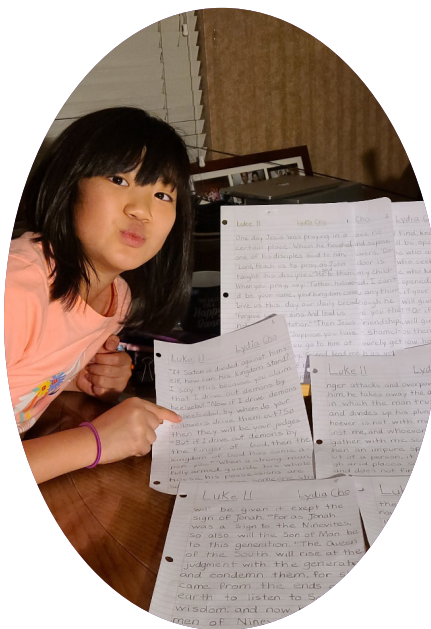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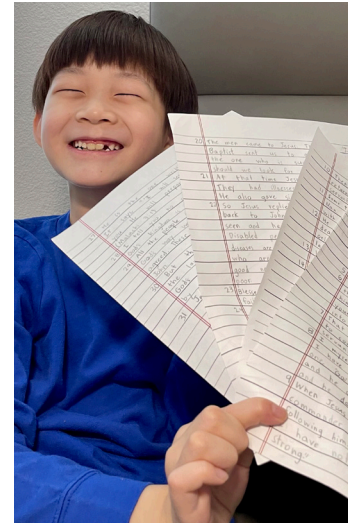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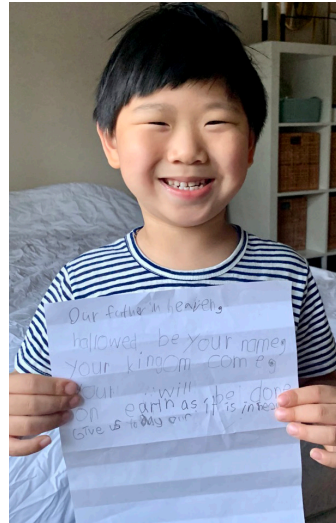
■ 부활절 성경쓰기

예수님 귀한 말씀 고사리 손으로 또박 또박



부활절을 앞두고 벨리와 MP채플 교육부에서는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체험하고자 교사들은 요한복음을 IC Joy 는 주기도문을, IC Kidz 는 누가복음을 필사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꼭 눌러쓴 아이들은 오랜만에 써보는 hand writing 에 손가락이 붓고 아팠지만 필사를 끝낸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 이성은 기자 |



■ 제2기 주안에일꾼

말씀 묵상, 기도생활 다시 한번 결단

주안에일꾼 훈련은 지난 10주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다윗에게 허락하신 잠재적인 왕국의 성립,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왕국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태어난 환경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는 불안하고 약한 심성을 자극해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떼어 놓으려는 계락을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이단 단체와 거짓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안에일꾼 훈련을 함으로써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많은 아픔의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행한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나 자신의 신앙 성장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올바른



석광수 집사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의 기초 위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과 로마 군인에게 넘겨 주었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세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을 그의 마음이 나에게도 찡찡함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누렸음에도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번 주안에일꾼 훈련을 통하여 형식적이고 나태하며 게으른 저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매일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안에일꾼을 통하여 배운 올바른 말씀 묵상과 성경 말씀으로 전도를 실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마지막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휘페레테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힘든 시작, 은혜의 결실

주안에일꾼은 신청할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할까 말까 생각하는 동안 신청자가 많아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경쟁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윤혜란 권사

Zoom으로 하는 훈련이었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 못 할 뻔 했던 주안에일꾼을 온라인으로 하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함께 하는 그룹식구들과 대면을 못해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대하면서 시작한 주안에일꾼 훈련을 1 단원, 2 단원을 하면서부터 시간에 쫓기고 과제에 부담을 갖게 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어렵게 시작한 훈련만큼 버티자,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3 단원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훈련, 정말 좋구나!' 반복되는 내용들이 내 머리 속에,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면서 훈련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단원마다 주신 은혜가 달랐으며,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적용이 실천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모두 읽고 말씀을 요약하면서 각 복음서의 다른 점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팔레스틴 지도를 몇 번씩 그리면서, 이제는 머릿속에 나사렛이 그려지고, 눈 감고도 팔레스틴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안에빛에서 보고 그려 보았던 그 지도, 알듯 말듯 했던 그 지도가 확실해진 것입니다. 훈련을 하며 재미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쉽게 시작하진 못했지만, 매주 은혜의 시간이 기다려 졌고 10 단원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아쉬움과 뿌듯함에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소감문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회개하고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도 나오 뉘미 없이 모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서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독서에 매말라 있던 내가 '그 청년 바보의 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으며 또 다른 은혜를 받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다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학을 기다리는 설렘이

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학창 시절의 설렘을 안고 맞이한 첫 주안 예습 공부 시간이었다. 70 이 넘는 나이에 정말 긴장도 되고 신선함 또한 느껴졌다. 예습을 해 가야하는 시간도 이 할머니에게는 오랜만에 진지한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우선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해주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영접하는 것도,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진다는 그 진리 앞에 삭개오는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여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광경이 어찌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한 등장 인물로만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훈련을 통해 철저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일주일 후에 있을 다음 훈련시간이 기다려진다. | 김선희 권사 |



《우리도 주안에가족》 주일 늦은 오후... 대면에 배로 가득찼던 벨리채플 주차장은 다시 텅 비고, 귀여운 토끼 한쌍이 저녁을 즐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점검

주안에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훈련이었다. 하지만 주안에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도 있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무엇이 옳고 아님을 분별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워주는 시간이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갖고 있던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 생각해보았고,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고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를 위한 그 분의 뜻을 높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리와 각 지역의 특성도 배우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도 배웠다. 그것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니 머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집중도 더욱 잘 됐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쉬웠다.

나는 주안에일꾼 훈련 중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다리 역할을 하신



사실이 놀랍게 깨달아졌다. 국가 간에 외교를 할 때도 본인의 나라와 문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 또한 이해하고 배워야 외교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

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나의 새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다. 훈련을 통해 배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 하나 허투로 만드시거나 의미없이 계획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흔들렸던 나의 믿음이 이로 인해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게 되니 이 훈련의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갈 수 있게 이끄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나의 새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주셨다. 훈련을 통해 배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 하나 허투로 만드시거나 의미없이 계획하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흔들렸던 나의 믿음이 이로 인해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게 되니 이 훈련의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갈 수 있게 이끄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 배이레 성도 |

■ 파더와이즈 / 마더와이즈

■ 토스티 가곡 Aprile(4월)

관계의 우선순위 배워

지혜로운 아버지는 삶으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로 이어져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파더와이즈를 시작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체하는 시간을 하루의 우선 순위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되어 훈육하며,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함을 배우고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아내와 하나되어 노력하려고 합니다.

| 조원 집사 |

내 삶을 나의 주인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말씀은 내 삶에서 한참 밀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면서도 내 연약함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당신의 사랑으로 지어진 나를 사랑하기 보다는 세상이 주는 만족감으로 나를 끊임없이 채워가며 아파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지혜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최우선이 아닌 나 스스로가 그 말씀 위에서서 상황에 따라 편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잘못된 관계 속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편을 마치며 다시 내 삶의 주인인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길 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당신의 강한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 되어 당신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이 저를 통해 주님이 맡겨주신 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정지현 집사 |

‘봄의 찬가, 생명의 환희’

4월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글귀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망각의 겨울 눈 속에서는 차라리 평화로웠지만 계절의 순환으로 봄이 도래함으로써 다시금 버거운 생존의 세계로 돌아온 생명체들의 고통을 묘사하며, 영국의 시인 T.S.Eliot 은 장편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는 1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어두운 시대상을 담아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영국인 특유의 무겁고 어두운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 작곡가 토스티는 가곡 Aprile(4월)에서, 4월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정의한다. 대기로 뿜어져 나오는 봄의 향기에 감격하여, 은유적 표현 없이 봄의 찬가를 직설적으로 읊으며 우리를 꽃이 핀 들판으로 초대한다. 살랑대는 봄바람을 표현한 듯한 피아노의 분산화음 위에서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열렬하게 봄의 환희를 노래한다.

토스티(Francesco Paolo Tosti, 1846~1916)는 이탈리아 태생의 작곡가이다. 나폴리의 왕립음악원에서 공부 후 마친 후 조교로 일하다가, 로마로 가서 후일 이탈리아의 여왕이 되는 사보이 왕가의 마르게리타 공주를 가르쳤다. 우연한 기회로 빅토리아 여왕 재위 시절 영국 왕실의 음악교사로 초청받아 활약했으며, 30년간 영국의 음악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 작위를 받은 음악가이다.

그가 활동할 당시의 유럽에서는 무역으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상인 계급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충분한 자분을 예술 활동에 후원하였다. 더불어 교통과 인쇄술의 발달로 나라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물품의 교환, 문화의 교류, 여행산업 등이 활발해지던 시기였다.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로서만 향유되던 예술이 유럽 전역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음악에 있어서도 한정된 내용의 작품만 쓸 수 있었던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

한 소재를 다루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한 수준의 무대를 꾸미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동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진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 지역의 극장들은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게 된다. 당시의 음악가들은 경쟁적으로 오페라 작곡에 뛰어들었다. 성패에 따라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스티는 일생을 가곡 작곡에만 전념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가 가곡에만 천착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노력의 결과로 이탈리아 가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위대한 가곡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가곡은 구조적으로 쉬워서 부르기가 수월하다. 가사를 섬세하게 사용하여 음정에 매우 적절하게 배치하였으며, 화성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귀와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는 선율을 만들어냈다.

토스티는 이탈리아 가곡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다. 동시에 대부분의 음악사전과 문헌 등에서 대체로 외면받는 이름이기도 하다. 단지 매력적인 가곡을 솜하게 썼을 뿐인데, 그는 음악학자와 비평가들의 흠대를 받아 왔다. 가곡 외에 다양한 작품을 남기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비평의 지점이다. 그러나, 수많은 성악가들이 토스티의 가곡을 앞다투어 연주하고 녹음을 남기고 자신들의 레파토리에 추가하며 토스티 가곡의 뛰어난 예술성을 증명한다.

팬데믹의 혼란이 시작된 작년 4월은 너무나도 잔인한 달이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2021년 4월은 고대하던 대면예배도 부분적으로 재개되며 기존의 일상으로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Aprile(4월)', 'Ideale(이상)', 'Sogno(꿈)', 'Tristezza(슬픔)', 'Vorrei(소원)', 'Addio(안녕히)' 등 토스티의 가곡들을 들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맘껏 노래해 보자.

| 황성남 집사(성가대 지휘자) |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이던 지난해 2월 ‘주안에말씀’ 성경 통독반에 등록했습니다. ‘통독이 끝날 쯤 코로나도 끝나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딱 한번 교회에 모여 함께 읽은 후에는 봉쇄령에 갇혀 각자 집에서 진도에 맞춰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 왔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병의 기사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금년 2월 다시 16기 주안에말씀 클래스 등록해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던 중 욥기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어린시절부터 많이 들은 내용이라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했는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를 놓고 장시간 갑론을박을 벌이던 끝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처절한 고통,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이 너무도 섭섭하고 괴로웠습니다. 위로해 주기는커녕 교만하다는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니 그로서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름의 논리와 연민으로 그를 깨우치려고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지만 고통과 분노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뜬금 없이 천지창조와 들

집승과 악어의 생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미물 하나하나까지도 직접 챙기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보여 주십니다. 이 광경에서 저는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마태복음 6장 30절)

‘새 한마리, 악어 한마리를 만들고 생육하게하는 창조주인 내가 하물며 그토록 아끼는 욥, 너를 이유 없이 고난 당하게 내버려두겠니, 너는 아직도 너의 아버지인 나를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 마음을 읽은 욥은 드디어 깨닫고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기42장 3절, 5절)

그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을 욥은 처음 복보다 더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는 큰 복까지 받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억울해했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성경에 쓰여질 이유도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하신 섭리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자초한, 이유가 충분한, 받아서 마땅한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믿음의 길을 견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 조용대 장로 |

믿음의 나침반



이현영 집사

마더와이즈 지혜의 시간은 단순히 육아에 필요한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로잡아야 하고 세워야하는 어머니의 자리를 알려주는 믿음의 나침반과 같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 세상의 어머니였던 제게는 그 어떤 수업보다도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안에 거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어머니란 이름으로 함께 서있는 한분 한분과 매과를 채워갈 때마다 말씀과 더불어 일상의 과도속에 서로의 연약함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위로하는 과정속에 너무나 큰 은혜와 더불어 제 작은 믿음을 되돌아 보며 그분들의 믿음에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삶의 무게와 연약함으로 제게 맡기신 자녀를 늘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며 낙심하는 제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아이들은 결코 내 소유도 세상의 성적표도 아니며, 내게는 너무나 귀하고 한없이 소중한 아이들임을... 무엇보다 하나님은 마더와이즈를 통해 내 연약한 모습만 쏙 닦아 늘 부족하고 세상기준엔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이 아이들을 통해 나는 감히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넌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네가 세상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도 괜찮단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할테니 넌 그저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너를 지혜의 어머니로 만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란 이름앞에 늘 막연한 두려움과 자책으로 한숨짓던 제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별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중 꼭집어 내 남편을 내게 보내신 이유를 다시 되돌아보며, 내가 그에게 돕는 베필로써 또한 믿음의 동역자로 더없이 평안한 휴식처가 되기를 소망하고, 너무나 귀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온전히 감사하고 하루 하루를 깨어 기도하며 마더와이즈 과정에서 배웠던 믿음의 지혜를 하루하루 삶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부에나팍(BP) 임시예배처소

새로 오픈한 주안예교회 부에나팍 임시예배처소(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지난 4월 18일 첫 주일예배가 시작됐다. (이광영 기자)

팬데믹에도 봉사의 손길은 분주

1년만에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렸다.

매주 토요일 밸리채플 성전을 열고 닦는 얼굴 없는 봉사자들, 교회 간판을 멋있게 세워준 분들, 그리고 이틀에 걸쳐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 가지들을 자르고, 비탈 언덕 덩굴을 제거한 안수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말끔해진 교회 모습을 보며 기뻐할 성도님들 생각에 피곤함도 있고 봉사할 수 있음에 되레 즐거움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봉사자들과 주안예만찬을 위해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준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의 수고를 잊을 수 없다.



'주안예'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민유선,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실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중략)
모래알만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어령>